

異物の 변신:

중국고전소설 속 '眞假人物故事'의 서사구조와 의미 연구

金明求*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眞假人物故事'의 서사내용과 구조
 - 1. 異物과의 타협과 거부:
《警世通言》第36卷〈皂角林大王假形〉
 - 2. 진짜와 가짜의 내면적 대결:
《西遊記》第57回〈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謔文〉,
第58回〈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
 - 3. 연쇄관계적 구조 속의 진위변별:
《百家公案》第58回〈決戮五鼠鬧東京〉
- III. '眞假人物故事'의 의미
 - 1. 타자의 인식과 구분 그리고 통합
 - 2. 존재가치의 상실과 회복
 - 3. 내면의식의 투영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타인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고 타인에게 각인시키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감은 항상 자신 이외에 타인에 의해서 비쳐지고,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한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또한 서로는 나와 他者를 철저히 경계를 짓기도 한다. 다시 말해, 타자는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지만, 또한 나

* 明知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와 경계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타자의 시각이나 스스로의 의식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타자의 직접적인 출현이나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미지의 타자가 아닌 자신과 같은 형상을 가진 또 다른 자신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나와 똑같은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나 자신이 '나'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타자에게 '나'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제외하고 '나'로 인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관점은 오로지 타자의 시각뿐이다. 나는 분명히 '나'이지만,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타자에 의해서만 나 자신이 증명되는 존재인 것이다. 결국 인간사회에서의 '나'는 끊임 없이 타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인식되며 이해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식과 증명에 대한 문제를 타자와 더불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철학적인 논점과 문학적 형상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 방식이다.¹⁾ 비록 작가가 철학적인 담론을 분명하게 담아내기 위해 문학 작품에 의도적으로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주입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글쓴이의 암묵적인 의식은 작품을 통해서 은연중에 표출되기도 한다. 중국고전소설에서 이러한 '자아와 타자', '진짜와 가짜', '상실과 회복' 등 철학적 관점과 '인간과 異物', '善人과 惡人', '俗人과 神仙' 등 문학적 형상이 엮여져 잘 드러나 있는 유형이 바로 '眞假人物故事'이다. '眞假人物故事'를 창작한 대부분의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철학적 관점을 독자에게 설득시키거나 강조하기보다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더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이러한 구도를 조성하였다. 이것은 어떤 철학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보다, 고사성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독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의도했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간에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감지해 낸다. '眞假人物故事'는 바로 '인간과 異物', '俗人과 神仙' 사이에서 자아의 증명과 인식, 타자와의 소외와 소통의 관계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 최천집, 《조선후기 진·가 확인형 소설의 형성기반과 서사세계》, 한국학술정보, 2008년, 282-283쪽 참고.

중국고전소설에서 ‘眞假人物故事’는 주로 진짜와 가짜의 인물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진위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을 ‘眞假人物故事’, ‘眞假確認型故事’, 또는 ‘眞假爭主故事’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眞假確認型故事’와 ‘眞假爭主故事’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과정 보다는 결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물의 다양한 반응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우연성과 곡절성에 보다 더 치중하고 있다. 또한 眞假를 확인하기위해서 끊임없이 타자와 대립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하는 ‘자아의 재발견’과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주제와는 간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眞假를 밝혀내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인물의 다양한 내재적 심리활동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보다 폭넓은 연구범위와 개방적 방법을 부여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眞假人物故事’라고 정하기로 한다.

‘眞假人物故事’는 진짜와 가짜가 동시에 대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가짜의 형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妖物이나 異物이 인간으로 변신하여 진짜와 대립하고 결국에는 외부의 도움으로 가짜를 물리치는 유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인물이 진짜가 부재한 틈에 진짜로 변장하여 진짜로 행세하거나, 또는 진짜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과 만나 진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형이다. 본 논문은 이중에서 첫째 부류인 妖物이나 異物이 가짜로 변신하여 진짜를 위협에 빠트리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이러한 작품에서 가짜는 진짜와 비슷한 정도를 넘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외형과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유형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증명, 타인과의 소통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자의 인식과 구분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며, 존재가치(자아실현)의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자아의 내부와 외부의 통합과 투영 과정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다.

‘眞假人物故事’에서 異物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외모와 성격을 그대로

2) ‘眞假人物故事’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인 어떤 인물이 진짜가 부재한 틈에 진짜로 변장하여 진짜로 행세하거나, 또는 진짜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과 만나 진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유형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모방하여 변신한다. 異物이 변신하여 가짜인물을 창조하고 진짜와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다면성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異物이 인간의 또 다른 자아를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異物은 언제든지 자신과 똑같은 인물을 창조할 수 있고,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속의 타자를 적절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진짜와 가짜의 대결로 꾸며지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이기도 하다.³⁾ 인간은 사회적 제약과 구속으로 인하여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가 힘들지만, 이러한 가짜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면을 반영하기도 하다. 이렇듯 ‘眞假人物故事’의 연구는 진짜와 가짜 인물의 다른 면을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의 정신세계와 사회와의 관계, 타자간의 소외와 소통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중국고전소설에서 異物이 인간으로 변신한 작품은 많지만, 진짜로 변신하여 진짜 행세를 하는 작품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이러한 異物의 변신 내용이 환상성이 농후하여 단시간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만, 사실성을 강조하는 문학적 조류를 반영하면서 강한 교훈성을 삽입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다. 중국고전소설이 발전할수록 대체적으로 이러한 환상성은 사실성으로 대체되고, 단순히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환상성을 많이 내포한 작품은 이전에 비해서 그 수가 줄어들었고, 비록 환상성이 농후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타자의 관계와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관점보다는, 타자와의 대립과 경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이원적 구조만을 부각시키고자 할 뿐이다. 비록 중국고전소설에서 생경하면서도 독특한 풍격을 보여주고 있는 ‘眞假人物故事’ 작품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가짜 인물을 창조하여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거나, 타자와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고전소설에서 진짜와 가짜의 인식, 구분과 통합의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眞假人物故事’를 중심으로 작품의 서사내용과 구조를

3) 이강엽은 그의 논문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에서 〈壘固執傳〉을 대상으로 眞穰과 假穰 사이의 眞假의 대립을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으로 여기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眞假人物故事’에서의 나타나는 ‘異物’과 인간의 대립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강엽,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 《古小說研究》 제17집, 2004년, 239-24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살펴보고, 이러한 서사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사예술 속에 내재된 복합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眞假人物故事'의 서사내용과 구조

'眞假人物故事'에서 異物の 변신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인물이 대립하고 통합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太平廣記》第286卷〈關司法〉, 《警世通言》第36卷〈皂角林大王假形〉, 《西遊記》第57回〈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謔文〉, 第58回〈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 《百家公案》第58回〈決戮五鼠鬧東京〉등이 있다.⁴⁾ 그러나 異物の 변신이 비교적 분명하고 진짜와 가짜 인물의 판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작품은 《太平廣記》第286卷〈關司法〉을 제외한 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⁵⁾ 《警世通言》第36卷〈皂角林大王假形〉(이하 〈皂角林〉), 《西遊記》第57回〈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謔文〉, 第58回〈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이하 〈假猴王〉), 《百家公案》第58回〈決戮五鼠鬧東京〉(이하 〈五鼠〉)⁶⁾은 모두 異物이 변신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어낸 뒤 진짜와 대립하는

4) 중국고전소설에서 異物の 변신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인물이 대립하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다양한 문헌 자료와 작품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보다 더 많은 작품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들인 시간과 노력의 한계로 인해 가장 분명하고 대표적인 작품은 네 작품 정도에 불가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진짜와 가짜의 대립이 분명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5) 《太平廣記》第286卷〈關司法〉은 '眞假人物故事'의 서사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세 작품에 비해서 서술이 간략하고 주제가 선명하지 못하다. 또한 〈關司法〉은 문언문으로 쓰였고, 다른 세 작품에 비해서 편폭이 작고 서술은 상당히 간략하다. 무엇보다도 진짜와 가짜의 대립과 통합의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太平廣記》第286卷〈關司法〉을 제외한 《警世通言》第36卷〈皂角林大王假形〉, 《西遊記》第57回〈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謔文〉, 第58回〈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 《百家公案》第58回〈決戮五鼠鬧東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작품의 簡稱은 편명에서 변신의 주체가 되는 異物을 가리키는 어휘를 선별하여 칭하였다. 서술의 편의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警世通言》第36卷〈皂角林大王假形〉은 〈皂角林〉, 《西遊記》第57回〈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謔文〉과 第58回〈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은 〈假猴王〉, 《百家公案》第58回〈決戮五鼠鬧東京〉은 〈五鼠〉로 하기로 한다.

구조를 가지고 있다.⁷⁾

〈梟角林〉이 실려 있는 《警世通言》은 화본소설을 수록한 명대화본소설집이고,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전형적인 화본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梟角林〉은 크게 ‘入話’-‘正話’-‘篇尾’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화본소설에서 ‘入話’는 내용을 암시하는 詩詞, 작가의 解釋이나 議論, 간단한 故事, 結尾詩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은 正話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正話’는 본 이야기이고, ‘篇尾’는 간단한 評論과 詩詞로 전체적인 내용을 종결짓는다. 〈假猴王〉은 전체 100회의 긴 편목을 가지고 있는 명대 장희소설인 《西遊記》의 57회와 58회를 가리킨다. 《西遊記》는 다른 장희소설과는 달리 孫行者일행이 서역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기 위하여 81년을 헤쳐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독립성이 비교적 강하다. 비록 前 회의 이야기가 다음 회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연결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회마다 개별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독립적인 이야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假猴王〉도 孫行者의 81년 중의 하나로, 《西遊記》 전체와 연계 짓지 않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고찰하여도 작품 전체의 주제와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五鼠〉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百家公案》은 명대의 대표적인 公案小說로서 모두 100회로 구성되어 있고 매회마다 독립적인 이야기로 包拯이 사건을 해결하는 활약상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다. 그러므로 〈假猴王〉과 〈五鼠〉는 비록 장편의 일부이지만,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 작품과 연결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이 세 작품은 명대에 출현하였거나 간행된 작품으로서 시기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異物이 가짜로 변신해서 진짜와 대립하다가 나중에는 진위가 밝혀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내용의 세부적인 전

7) 본 논문에서 수록된 세 작품의 원문은 馮夢龍編撰, 徐文助校訂, 繆天華校閱, 《警世通言》(臺北: 三民書局), 1992年; 吳承恩撰, 繆天華校注, 《西遊記》(臺北: 三民書局), 2006年; 古本小說叢刊編輯委員會編, 《古本小說叢刊》第2輯第4冊, 安遇時編集, 《百家公案》(北京: 中華書局), 1990年을 저본으로 하였다.

8) 이 세 작품은 모두 명대에 출현한 작품으로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사상적, 예술적인 면 등 종합적인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특징이 본 작품의 분석에 있어서 관건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은 역사적, 사상적인 면을 작품 분석에 적용하기보다는 작품 원문에 보다 더 치중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개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1. 異物과의 타협과 거부: 《警世通言》第36卷 〈皂角林大王假形〉

〈皂角林〉은 전체적으로 異物과의 타협→거부→가짜 등장→진짜 추방, 곤경→신의 도움→가짜 제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皂角林〉의 서사내용을 살펴보면,

구성	줄거리	비고
入話	① 入話詩 ② 入話故事: 欒巴는 豫章城의 太守로 부임. 豫章城내에 있는 廬山廟는 영험하여 종종 신령이 직접 나타나 말하기도 함. 欒太守는 신령과 대화하고자 여러 번 청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장막을 걷으니, 神像이 보이지 않음. 欒太守는 이 신령이 妖物이라고 여기고 사당을 철거함. 欒太守는 혹시라도 이 妖物이 다른 지방으로 가서 양민을 괴롭힐까봐 사직을 모신 사당에 가서 그 妖物의 행방을 물어봄. 그 妖物은 齊郡에서 書生으로 변신하여 齊郡 太守의 사위가 됨. 欒太守는 妖物을 쫓아서 齊郡에 다다르고, 齊郡 太守에게 사위의 정체를 말함. 齊郡 太守의 사위는 늙은 너구리(老狸)가 변신한 것이고, 欒太守는 그를 바로 처단함.	
正話	발단 ① 東京사람인 趙再理는 廣州 新會縣 현령으로 부임함. ② 皂角林大王廟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으나, 해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신상을 파괴하고 사당을 불태워 버림. ③ 皂角林大王(해골)이 직접 나타나자 趙再理는 활을	

		쏘아 내쫓아 버림.	
	전개	<p>① 趙再理는 임기가 만료가 되어 東京으로 돌아감. 峰頭驛에서 수행인과 짐이 모두 사라짐. 노인의 도움으로 옷과 식량을 얻어 東京으로 돌아옴.</p> <p>②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다른 趙再理가 먼저 와 있음. 趙再理의 모친은 누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은 開封府로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함.</p> <p>③ 가짜 趙再理는 '부임문서'를 보여주며 진짜라고 하고, 또 관리에게 뇌물을 주자 진짜 趙再理는 가짜로 판결을 받아 兗州 奉符縣으로 추방당함.</p> <p>④ 진짜 趙再理는 奉符縣으로 가는 도중에 관리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자 仙童이 나타나 구해줌.</p> <p>⑤ 趙再理는 奉符縣에서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神童이 나타나 구해주면서, 가짜 趙再理는 皂角林大王이 변신하였다는 것을 알려줌.</p>	
	절정	<p>① 趙再理는 九子母娘娘이 알려준 대로 龍王에게 가서 어떤 물건을 상자에 담아서 東京으로 돌아옴.</p> <p>② 진짜 趙再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현령은 가짜 趙再理를 데리고 옴.</p> <p>③ 진짜 趙再理는 龍宮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자, 하늘이 검검해지면서 가짜 趙再理는 사라짐.</p>	
	결말	<p>① 九子母娘娘이 나타나 상자 속의 물건은 여우요괴이고, 皂角林大王은 쥐(陰鼠)요괴임을 알려줌.</p>	
篇尾	篇尾詩		

〈皂角林〉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皂角林大王이 가짜 趙再理로 변신하기 전에 진짜 趙再理 앞에 나타나 일종의 경고와 타협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假猴王〉와 〈五鼠〉에서 異物은 진짜에게 잠시 나타나거나 혹은 어떤 암시를 통해서 경고와 위협을 가하지 않고, 곧바로 가짜 인물로 변신하여 진짜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반면에,

〈皂角林〉에서는 皂角林大王이 직접 나타나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皂角林大王의 이러한 행동 저변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심정과 趙再理와 어느 정도 타협하고자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그는 새로 부임한 많은 관리들을 보아왔고, 趙再理에게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趙再理는 皂角林大王를 보자 바로 활을 쏘아 내쫓아 버린다.

趙再理의 이러한 꾀꾀하고 의지력이 강한 성격은 이후 가짜 趙再理와의 판결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짜 趙再理는 이미 세속적인 사건처리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낸다. 이와 반대로 진짜 趙再理는 오로지 자신이 진짜라는 것만을 주장할 뿐,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 진짜 趙再理는 사건해결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능력하다. 결국에는 관리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자, 仙童의 도움으로 兗州 奉符縣에 안착한다. 그는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奉符縣 현령의 도움으로 훈장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느껴 자살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은 내면적으로는 사리 분별하는 데에 서툰 심지가 굳지 못하여 쉽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무에 있어서는 강직하고 남과 잘 타협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가짜 趙再理는 오히려 진짜보다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주위의 신망을 얻는다.

그는 가짜 趙再理의 본색을 밝혀내기 보다는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한다. 이전의 皂角林大王 사당을 파괴할 때의 강하고 끈질긴 추진력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할 때는 강력하지만, 정작 본인의 개인적인 일에는 오히려 불안하고 나약한 이중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⁹⁾ 나중에는 인내와 고집으로 가짜와의 대립에서 승리하게

9) 〈皂角林〉에서 주목할 점은 趙再理를 구해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인데, 신의 도움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趙再理가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 하며 '생명포기'를 하려하자 仙童이 두 차례나 나타나 그를 저지한다. 이때 신은 그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가 다시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나약하고 무력한 정신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趙再理가 외부적으로는 강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있어서, 불의에 맞서는 의지력은 강하지만, 정작 자신의 처지가 바뀌자,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되지만, 이 대립은 자신의 단점만을 더욱 더 부각시킨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자신의 한계점과 편향점을 인식하지 못한 그는 가짜 趙再理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선행으로 인하여 신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짜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승리의 이면에는 주체성의 획득과 異物의 제거를 떠나서 자신의 성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異物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신의 힘이 동원되며, 趙再理가 자살을 하도록 충동하는 것은 가짜 趙再理가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바로 趙再理의 심리적 결함이 보다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겪은 역경과 곤란은 외부에서 기인하였지만, 나중에는 내부로 확산되어 정서적 기제를 와해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가짜 趙再理와 진짜와의 진위판별 과정에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진짜 趙再理는 감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가짜 趙再理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당초 趙再理가 新會縣 현령으로 부임했을 때, 梟角林大王이 나타나 감성적으로 타협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趙再理가 이성적으로 대하여 활을 쏘아 제거하려고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梟角林大王의 이성적인 면을 가장 잘 부각시킨 부분은 趙再理가 임기를 마친 3년 후에 비로소 趙再理에 대한 보복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梟角林大王이 왜 3년을 기다린 것일까? 梟角林大王과 같이 신이한 능력을 가진 異物은 얼마든지 趙再理를 해치고자 하면 바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는 趙再理로 변신하고 모든 일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하며, 심지어 진짜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까지 만든다. 그 이유는 그의 내면에는 '獸性'과 '理性'이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상호간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梟角林大王은 趙再理를 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골탕 먹이고, 그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趙再理를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숭배하고 경외하도록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약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가짜를 물리칠 수 없고, 신은 점차적으로 趙再理의 의지와 용기를 회복하게 만들어 가짜와 대적하도록 한다. 〈梟角林〉에서는 사건해결과 趙再理의 내적 평안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는 신의 등장과 도움이 필수적이고, 신은 직접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거나 관여하지 않고, 단지 趙再理의 내외면적 균형과 의지회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마치 〈關司法〉(《太平廣記》第286卷)의 유노파처럼 關司法 부부가 자신에게 복종하고 위협을 느껴서 벌벌 떨게 만들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인간을 유희의 상대, 농락의 상대로 여기려는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趙再理는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포기'로 맞서고 있다. 梟角林大王은 趙再理와 전혀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데, 바로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인간의 손을 빌려 趙再理를 해치려 한다는 점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위협과 강압을 드러내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진짜와 가짜의 내면적 대결: 《西遊記》第57回 〈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騰文〉, 第58回 〈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

〈假猴王〉에서의 진짜와 가짜의 대립과 갈등은 57회(〈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騰文〉)와 58회(〈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에 걸쳐 나타난다. 〈假猴王〉에서는 가짜 孫行者, 八戒(豬八戒), 沙僧, 龍馬, 三藏이 출현하는데, 이 중에서 서사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짜 孫行者和 진짜 孫行者的 대결 장면이다.

우선 〈假猴王〉의 형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梟角林〉은 단편소설이고 화본소설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假猴王〉은 장편소설이고 장회소설인 《西遊記》의 중반 부분에 해당된다. 〈梟角林〉에서 볼 수 있는 '入話'에 해당하는 도입부 고사 없이 바로 본 이야기에 들어가고 있다. 작품의 길이에 있어서도 〈梟角林〉은 1회 분량에 해당되고, 이 중에서 入話의 내용을 제외하면 2회에 걸쳐 이야기가 진행되는 〈假猴王〉보다 편폭이 상당히 작다. 〈假猴王〉에서 三藏이 진짜 孫行者を 내쫓자, 이때 가짜 孫行者가 나타나 三藏을 때려 기절시키고 붓짐을 빼앗는 등 일련의 내용들이 57회와 58회에 걸쳐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58회에서는 57회에 이어서 사건의 진말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전반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서술 관점이 진짜 趙再理와 가짜 趙再理에만 국한된 〈梟角林〉보다는 〈假猴王〉은 여러 인물이 등장함과 동시에 해당 인물

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야기의 전개가 복잡하고 장면의 전환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사내용 중에서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梟角林〉에서는 趙再理의 고소로 官府에서 진위를 가려내지만 어떤 무력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假猴王〉에서는 서로 진짜라고 우기며 계속해서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든다. 이때 가짜인물은 孫行者뿐만 아니라, 八戒, 沙僧, 三藏 등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가짜 八戒, 沙僧, 三藏에 대한 진위는 진짜 八戒와 沙僧에 의해서 무력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반해, 孫行者的 진위 분별은 결국 世尊(釋迦如來)¹⁰⁾의 도움으로만 해결된다. 구체적인 서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	줄거리	비고
발단	<p>① 孫行者는 三藏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산적을 때려죽여 三藏의 노여움을 삼. 孫行者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三藏을 따르게 해달라고 애걸함. 三藏은 孫行者가 떠나지 않으면 다시 진언을 율 것이라고 위협하여 孫行者를 내쫓음.</p> <p>② 孫行者는 觚斗雲을 타고 觀音菩薩을 찾아가, 자신이 쫓겨난 일을 말하고 觀音菩薩의 거처에서 머무름.</p>	57회
전개	<p>① 孫行者를 내쫓은 후 八戒(豬八戒)와 沙僧, 龍馬와 함께 길을 떠남. 八戒가 三藏을 위해 물을 뜨러 감. 八戒가 오지 않자 沙僧이 재촉하러 떠남.</p> <p>② 가짜 孫行者가 나타나 두 손에 물이 든 잔을 들고 三藏에게 주려고 하자, 三藏은 화가나 孫行者를 나무람. 가짜 孫行者는 화가나 三藏을 때려서 혼절하게 하고 붓짐을 가지고 떠남.</p> <p>③ 八戒가 和尚으로 변신하여 공양밥을 얻어오던 중에 沙</p>	57회

10) '부처'의 명칭은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 작품 안에서도 서술자의 처지와 신분에 따라 '世尊', '釋迦如來', '如來', '釋迦牟尼'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작품과 서술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世尊'과 '釋迦如來'로 통일하고자 한다.

僧을 만나서 같이 돌아옴. 三藏이 쓰러진 것을 보고 죽은 줄 알았으나, 잠시 후 三藏이 깨어나고 孫行者가 자신을 때려 기절시켰다고 말함.

④ 三藏 일행은 공양밥을 얻었던 초막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잠시 머무르기로 함.

⑤ 沙僧이 三藏의 붓짐을 찾으러 花果山 水簾洞으로 떠남. 沙僧이 삼일 밤낮으로 달려서 水簾洞으로 가서 가짜 孫行者를 찾아가나, 가짜 孫行者는 그를 알아보지 못함. 沙僧이 그곳에서 가짜 龍馬와 三藏, 豬八戒, 沙僧을 발견함. 沙僧은 화가 나서 가짜 沙僧을 죽임. 가짜 沙僧은 원숭이 요괴가 변신한 것임. 沙僧이 포위당하자 도망쳐서 觀音菩薩에게로 감.

⑥ 沙僧은 남해의 落伽山에 도착해서 觀音菩薩을 만남. 沙僧은 觀音菩薩을 만나 가짜 孫行者가 三藏을 기절시키고 붓짐을 가져간 것과 花果山 水簾洞에 가짜 三藏일행이 있음을 이야기 함.

⑦ 진짜 孫行者는 沙僧과 함께 가짜 孫行者를 없애러 花果山 水簾洞으로 감.

⑧ 진짜 孫行者와 가짜 孫行者는 격렬하게 싸우고 沙僧은 옆에서 손을 쓸 수가 없음. 沙僧은 水簾洞으로 들어가 붓짐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三藏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림.

⑨ 진짜와 가짜 孫行者는 싸우면서 남해의 觀音菩薩에게 가서 진위를 밝혀달라고 부탁함. 觀音菩薩과 여러 신들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진짜를 가려낼 수 없었음. 이에 觀音菩薩은 진언을 읊으면 진위가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진언을 읊자 진짜와 가짜 모두가 고통스러워 함. 하늘의 장군들과 여러 신들도 진위를 가리기 어려움.

⑩ 옥황상제에게 가서 진위를 밝혀 달라고 함. 옥황상제는

58회

	<p>照妖鏡을 비추나 모두 같은 형상임.</p> <p>① 沙僧은 孫行者와 이별하고 삼일밤낮을 달려서 三藏에게 감. 三藏에게 그간의 일을 알려줌. 갑자기 하늘에서 두 孫행자가 나타나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함. 三藏에게 가서 진위를 확인하려고 함. 三藏이 진언을 외우자 두 孫행자가 모두 고통스러워 함. 三藏은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함.</p> <p>② 두 孫행자는 陰君(염라대왕)에게 가서 진위를 밝혀달라고 하기 위해 다시 떠남.</p> <p>③ 한편 八戒(豬八戒)는 다시 花果山 水簾洞으로 봇짐을 찾으러 떠남.</p> <p>④ 두 孫행자는 陰府에 다다르고, 陰君은 판관을 통해서 명부를 살펴보니, 가짜 孫행자의 이름은 없음. 地藏菩薩이 나타나 諦聽을 통해 진위를 가리고자 함. 諦聽은 가짜 孫행자를 알아보았으나, 天宮과 陰部를 소란하게하고, 또한 요괴의 법력이 강하여 잡을 수 없다고 함. 地藏菩薩은 孫行者에게 世尊에게 가서 진위를 밝혀보라고 권함.</p>	
절정	<p>① 世尊은 觀音菩薩에게 五仙, 五蟲, 四猴에 대해서 이야기함. 가짜 孫행자는 六耳猴가 변신한 것이라고 말함.</p> <p>② 가짜 孫행자는 世尊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자, 별로 변신하여 도망가고자 함. 날아서 도망가려는 순간, 世尊이 발우로 잡아서 六耳猴임을 밝히고, 진짜 孫행자는 머리를 내리쳐 죽임.</p>	58회
결말	<p>① 觀音菩薩은 孫행자를 데리고 世尊을 떠나 三藏이 있는 곳으로 감.</p> <p>② 觀音菩薩은 지난 번 三藏을 때린 妖物은 六耳猴가 변신한 가짜 孫行者라고 말하고, 孫행자를 받아들여 고난을 헤쳐 나가라고 함.</p> <p>③ 豬八戒는 가짜 三藏과 가짜 豬八戒를 때려죽이고 두</p>	58회

	개의 붓짐을 찾아서 돌아옴. ④ 三藏 일행은 그간의 불신과 원망에서 벗어나고, 예전처럼 합심하여 불경을 구하러 떠남.	
--	--	--

〈假猴王〉은 《西遊記》의 57회와 58회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 발단→전개→절정→결말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짜 孫行者와 가짜 孫行者를 구별하기 힘들어 觀音菩薩(肉眼→진언)→하늘의 장군들과 여러 신(肉眼)→옥황상제(照妖鏡)→三藏(진언)→陰君(名簿)→地藏菩薩(諦聽: 異物)을 거쳐 최종적으로 世尊에 의해서 밝혀진다. 〈假猴王〉에서 나타나는 진짜와 가짜의 대결을 애써 인간 내부의 이심(二心)이 서로 다투는 것으로 이심(二心)이 일심(一心)으로 통일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번뇌로 보는 시각¹¹⁾을 제쳐두고라도, 외형적 대립을 야기하는 진짜와 가짜는 평행선의 양 끝점을 의미한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설득의 접점이 없이, 어느 한쪽을 철저히 제압하거나 파괴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孫行者는 오직 무력으로만 진위를 가려내려 한다. 진짜 孫行者는 어떻게 해서든 가짜를 파괴하려하지만, 무력으로 저지할 수 없다. 가짜를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력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짜의 본색을 밝혀내는 것이다. 孫行者는 오직 외형적인 부분에 의한 분별에만 치중하였고, 내재된 근원적인 부분은 간과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孫行者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나섰던 여러 신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에는 世尊에게 가서 진위를 밝혀내는데, 이때 世尊은 무한한 힘으로 가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짜의 진면모를 드러내게 하여 그 힘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梟角林〉와 〈五鼠〉에서 주로 보이는 진짜는 가짜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하고, 이후에 신의 도움으로 명예를 회복한다는 설정과는 사뭇 다르다. 진짜는

11) 《西遊記》第58回 〈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에서 眞假의 싸움에 대해서 世尊은 眞假의 싸움은 바로 이심(二心)이 서로 다투는 것(汝等俱是一心, 且看二心競鬪而來也。)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가짜 孫行者가 단순한 진짜 孫行者와 대결하는 요괴가 아니라, 孫行者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王莉, 〈眞假美猴王〉故事的心理學解讀, 《長沙大學學報》, 第23卷第1期, 2009年1月; 記德君, 〈古代小說中眞假人物設置的藝術匠心〉, 《廣州大學學報》第1卷第2期, 2002年2月을 참고하기 바란다.

계속해서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려고 가짜와 싸우며, 가짜는 진짜와 같아지기 위해서 싸운다. 이것은 마치 내면의 양면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신의 도움으로 가짜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의 진면모를 알게 되자, 자연히 진짜가 승리하는 형식을 취한다.

가짜는 진짜의 내면에 감추어진 일종의 ‘그림자’이다. 이 ‘그림자’는 자아의식의 무의식적인 측면으로 자아의 특징에 가까우면서도 이와는 대조되는 아직 의식화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가짜는 진짜의 의식적 자아와 상당히 긴밀히 결부되어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비록 世尊에 의해서 가짜의 본색이 드러내자 가짜는 바로 힘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진면목을 알기 전까지는 그 힘은 외형적으로는 진짜와 대등하다. 본모습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실체를 안다는 것인데, 그것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침잠되어 있던 본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다. 가짜는 이러한 본 모습이 발각되자 이전의 진짜와 대적했던 강한 힘은 잃어버리고, 작은 곤충인 ‘벌’로 변신하여 도망간다. 이것은 힘의 원천이 고갈되자 外形과 妖力 모두 축소되는데, ‘벌’은 이러한 축소된 힘을 상징하고 있다. 비록 世尊의 혜안으로 가짜가 발각되자 孫行者는 바로 가짜를 때려죽인다. 이러한 무력적 행위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 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양면성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상징적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가짜는 진짜 행세를 하면서 진짜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 심지어 진짜의 소소한 약점까지도 복사하여 완벽한 진짜를 꿈꾼다. 천상의 많은 신들과 異物, 심지어 孫行者에게만 해당되는 진언까지도 孫行者의 진위를 가려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孫行者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가짜 孫行者는 서방으로 가 불경을 취하여 혼자서 공명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¹³⁾ 진짜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진짜를 제거하려는 뜻은 없다. 단지 三藏을 기절시키고 붓짐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

12) 이부용, 《韓國民譚의 深層分析 - 分析心理學的 接近》(집문당, 1995년), 55쪽; 이부용, 《分析心理學 - C.G. Jung의 人間心性論》(일조각, 1995년), 61-62쪽 참고.

13) 我今熟讀了牒文, 我自己上西方拜佛求經, 送上東土, 我獨成功, 教那南瞻部洲人立我爲祖, 萬代傳名也。

전부이다. 붓짐은 孫行者 일행의 取經의 목적과 의미를 가진 상징적 물건이다. 만약 이 붓짐이 없다면 孫行者 일행의 取經이 진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八戒와 沙僧도 연이어 花果山 水簾洞로 가서 이 붓짐을 되찾으려고 하고, 이 붓짐을 가져간 가짜 孫行者는 붓짐을 동굴 깊숙이 숨겨두고, 진짜 행세를 하면서 孫行者와 대적한다.

〈梟角林〉에서의 가짜 趙再理는 진짜 趙再理의 일부 다른 면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비교적 객관적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假猴王〉에서의 가짜 孫行者는 진짜의 또 다른 모습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짜 孫行者는 필사적으로 진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울 속의 비춰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처럼 진짜의 반응과 의지에 따라 그 대립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울 속에 비춰진 듯한 이 형상은 대상을 스스로 내면의 깊은 곳까지 향하게 하여 진실한 자아를 찾게 만든다.¹⁴⁾ 진짜 孫行者가 진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자 자신도 진짜가 그랬던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진짜가 모든 신들에게 자신이 진짜라고 강조를 할 때마다, 자신도 똑같이 진짜라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孫行者와 다른 異物の 외형적 대립을 보여주는 것보다, 孫行者 내면에 존재하는 '眞性'과 '假性'의 내부적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능에 따라 행하려는 '獸性'과 인내로 곤란을 극복하려는 '理性'이 맞서면서 스스로 갈등과 대결을 통해 '魔性'을 극복하고 '人性'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가 계속해서 대결을 벌이고 있지만, 진짜가 진위판별에 필사적인 것에 반해서 가짜는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짜가 '나 자신임(Self-Identity)'을 강조할수록, 가짜는 더욱 진짜와 가까워지고, 진위의 분별은 더욱 어렵게 만든다.¹⁵⁾ 이것은 마치 거울이 사물을 사실적이고 개관적으로 반영하는

14) 鄒婷, 〈試析白居易詩中的鏡子意象〉, 《岱宗學刊》第12卷第1期, 2008年3月, 13쪽 참고.

15) '나 자신임' 또는 '나의 나다움'을 '자아 동일성(Self-Identity)'이라고 한다. 즉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서 보증해주고,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나'를 유일무이하고 연속된 자아인 '나'로서 유지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동일성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眞假人物故事'에서는 이렇게 당연시 되는 현상이 오히려 굴절되고 부정되어, '나 자신임'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진실과는 멀어지는 국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아 동일성'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趙顯雨, 〈「壘固執傳」과 '自我 同一性' 문제〉, 《語文研究》 제36권제1호, 2008년 봄, 231-236쪽을

본성에 기인하는 것처럼, 실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비춰지는 것과 같다.¹⁶⁾ 가짜는 단지 진짜의 모습을 흉내 내고, 서로가 극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야기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서로 반응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셈이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는 서로 대립하지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려는 자신의 내면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연쇄관계적 구조 속의 진위변별: 《百家公案》第58回 〈決戮五鼠鬧東京〉

〈五鼠〉에는 모두 다섯 명의 가짜가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기 위하여 모두 가짜로 변신한다. 〈假猴王〉에서는 비록 孫行者를 비롯한 八戒, 沙僧, 三藏 등이 가짜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孫行者 중심으로 서술이 진행되므로 다른 인물에 대한 서술은 상당히 미미하다. 또한 작품의 중요한 서술관점도 孫行者의 진위에만 달려 있고,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五鼠〉에서도 〈假猴王〉에서처럼 여러 명의 가짜가 등장하지만, 단지 가짜 등장 의 단초를 제공한 施俊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짜 인물이 施俊과 같이 중요한 인물로 대두된다. 그러다가 중후반부에 이르러서는 包拯이 등장하면서 施俊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로 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형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¹⁷⁾ 이러한 현상은 〈假猴王〉에서 서술관점이 孫行者에 집중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물론 〈五鼠〉에서 다섯 명의 진짜와 가짜가 모든 동일한 집중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 包拯이 비교적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지만, 〈假猴王〉의 孫行者에 비해서는 한 인물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분산되었다.

참고하기 바란다.

16) 秦榕, 〈從《古鏡記》看析鏡子文學意象的流變〉, 《福州師專學報(社會科學版)》第22卷第1期, 2002年2月, 20-21쪽 참고.

17) 《百家公案》第58回 〈決戮五鼠鬧東京〉의 주요 내용은 包拯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작품의 후반부에는 주로 가짜 인물과 包拯의 대립과 가짜 인물을 밝혀내는 과정에 서술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包拯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五鼠〉의 서사내용은 다섯 명의 진위변별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과정은 가짜와 진짜가 서로 대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짜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다른 異物을 끌어들여 다른 가짜 인물로 변신하게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다시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 다른 異物을 끌어들여 변신하게 하는 '연쇄관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五鼠〉의 서사내용과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	줄거리	비고
발단	<p>① 清河縣의 秀士 施俊은 부인 何氏(何賽花)와 작별하고 東京으로 시험을 치르러 감. 施俊과 家童 小二是 날이 저물어 산 입구의 여관에 머무름.</p> <p>② 이 산에는 5마리의 쥐요괴가 살고 있었는데, 다섯째 쥐요괴는 여관주인으로 변신하여 施俊을 독으로 중독시킴. 施俊은 복통을 호소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여관주인은 이미 사라짐. 날이 밝고 방안에서 한 할멈이 나오자, 자초지정을 이야기 함. 노인은 요괴가 나그네를 홀리려고 술에 약을 탄 것이라고 말하고 빨리 해독약을 찾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함.</p> <p>③ 小二是 할멈이 일러준 대로 해독약을 구하러 茅山の 董眞人을 찾아감.</p>	
전개	<p>① 다섯째 쥐요괴는 施俊으로 변신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일찍 돌아온 이유를 묻는 부인의 질문에 科場이 이미 끝났다고 말함. 小二的 행방을 묻자 늦게 도착한다고 둘러댐. 부인 何氏와 회포의 정을 나눔.</p> <p>② 보름 후 施俊은 小二가 董眞人에게서 구한 丹藥을 먹고 난 뒤에 병이 나음. 그러나 과거시험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림. 施俊이 여관을 떠난 뒤 20여일 후에 마침내 집에 도착함. 집에 도착하니 이미 가짜 施俊이 와 있음.</p> <p>③ 진짜 施俊과 가짜 施俊은 모두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p>	

	<p>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어 王丞相에게 가서 호소함.</p> <p>④ 넷째 쥐요괴는 王丞相으로 변신함. 같이 조정으로 들어가 仁宗에게 진위를 가리도록 함.</p> <p>⑤ 셋째 쥐요괴는 仁宗으로 변신하고 같이 國母를 알현하려 감.</p> <p>⑥ 둘째 쥐요괴는 國母로 변함. 包拯을 불러 진위를 판결토록 함.</p> <p>⑦ 첫째 쥐요괴는 包拯으로 변신함. 한순간에 施俊, 王丞相, 仁宗, 國母, 包拯이 두 명이어서 진위를 분별하기 어려움.</p> <p>⑧ 진짜 包拯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에게 잠시 저승을 다녀오겠다고 함.</p> <p>⑨ 진짜 包拯의 혼이 南天門으로 들어가 옥황상제를 만남. 속세에서 진짜로 행사하는 가짜는 모두 西方雷音寺 다섯 마리 쥐요괴임을 알게 됨.</p> <p>⑩ 包拯은 使者와 함께 雷音寺로 가서 玉面猫를 빌리려 함. 世尊은 절에서는 神猫를 잠시도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하여 대신 金睛獅子를 보내려고 함. 包拯은 다시 使者와 함께 世尊에게 부탁해서 玉面猫를 옷자락에 담아서 이승으로 돌아옴.</p>	
절정	<p>① 진짜 國母는 狄靑에게 명을 내려 壇을 세우게 하고, 진짜 包拯은 神猫를 꺼냄.</p> <p>② 神猫는 순식간에 달려 나가, 네 마리 쥐요괴를 물어죽이고 공중으로 달아난 한 마리를 쫓아 감.</p>	
결말	<p>① 仁宗은 包拯의 공을 치하하고, 施俊은 부인 何氏와 다시 결합함.</p>	

〈五鼠〉에서는 다섯 명의 쥐요괴가 등장하는데, 이 요괴들은 모두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을 홀리곤 하였다. 다섯 명의 요괴의

변신 과정은 다섯째부터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먼저 다섯째 요괴는 여관주인과 이어서 施俊으로 변신하고, 넷째는 王丞相, 셋째는 仁宗, 둘째는 國母, 첫째는 包拯으로 변신하였다.¹⁸⁾ 다섯째 요괴는 施俊에게 독약을 먹인 뒤 그의 집으로 먼저 가서 가짜 행세를 한다. 다섯째 요괴는 진짜 施俊이 건강을 회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施俊이 돌아오고 진위의 변별을 위해서 가족들이 王丞相을 찾아가자, 이때 위협을 느낀 다섯째 요괴는 넷째를 불러 王丞相으로 변신하게 한다. 진위가 밝혀지려는 순간에 위협을 느낀 넷째 요괴는 다시 仁宗으로 변신하며, 나중에는 다른 쥐요괴를 불러들여 國母와 包拯으로 변신하게 된다.

〈五鼠〉는 진위 분별과정이 순차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모든 사건을 해결할 탁월한 능력이 있는 包拯조차도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 그것도 오직 世尊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假猴王〉에서처럼 여러 신들이 모두 진위를 분별할 수 없었고 오직 世尊만이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假猴王〉에서는 世尊이 직접 가짜의 본색을 알아내자, 가짜는 무기력해지면서 진짜 孫行者에게 제압당하는 것과는 달리, 〈五鼠〉에서는 世尊이 이 요괴들의 본색을 밝히는 것 보다 이 요괴들을 처치할 수 있는 다른 異物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皂角林〉에서 趙再理가 龍宮에서 데리고 온 異物(여우요괴)이 가짜를 처치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五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변신의 대상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승상과 황제 및 그 친인척이라는 점이다. 요괴는 평민들이 두려워서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인물로 거리낌 없이 변신한다. 이것은 진위를 분별하는 판별자가 가족에서 벗어나 황실까지 확대되어 국가적 현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담한 변신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는 다섯째 요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언쟁을 벌이고 대립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변신의 결과만

18) 쥐요괴들은 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동료들 모으고 그 동료들은 냄새를 통해서 사건의 긴박함을 알게 되고는 가짜 인물로 변신한다. 이것은 쥐가 후각에 예민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임기응변에 빠른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넷째 요괴가 王丞相로 변신하는 과정부터는 진짜와 가짜의 대립과 진위를 밝혀내는 과정이 상당부분 간략화 되었다. 그러므로 일부 대상에게 집중되어 진위를 밝혀나가는 과정이 주를 이루었던 〈皂角林〉, 〈假猴王〉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앞의 두 작품이 변신의 과정보다는 변신 후에 진짜와 가짜의 대립이 중심이었다면, 〈五鼠〉는 변신과정 그 자체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서술관점은 진짜와 가짜와의 대립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변신하는 과정,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쥐요괴들의 변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包拯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죽음을 통해서 저승으로 간다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包拯은 옥황상제를 만나서 옥황상제의 지시로 雷音寺로 가서 玉面猫를 빌려 오려고 하지만, 世尊의 거절로 다른 異物을 빌려가게 한다. 그러나 包拯은 포기하지 않고서 다시 世尊에게 부탁한다. 이러한 과정은 쥐요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쥐요괴가 근원적인 두려움인 가진 玉面猫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異物(金睛獅子)은 일시적으로 위협하는 방편일 뿐, 쥐요괴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쥐요괴가 雷音寺에서 나왔으며, 雷音寺를 지키고 있는 玉面猫만이 쥐요괴의 제거가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玉面猫에 대한 집착과 고수를 통해서 반드시 그 근원을 찾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包拯이 玉面猫를 통하여 쥐요괴를 제거하려고 하나, 이 다섯 요괴를 모두 없애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리 쥐요괴는 하늘로 도망가고 世尊이 보내준 玉面猫가 이 쥐요괴를 잡으려고 하늘로 솟아 쫓아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모든 요괴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과는 다른 미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후 玉面猫가 달아난 쥐요괴를 쫓아가서 처치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작품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은 어느 정도 여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獸性’의 욕구는 완전하게 소멸시킬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皂角林〉, 〈假猴王〉, 〈五鼠〉에는 모두 異物의 변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진위를 가리는 방법과 양자가 대립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짜로 변신한 異物을 자신의 힘이 아닌 외부의 도움으로 처

치한다는 설정과 異物과 직접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五鼠〉는 包拯이 진위를 밝히기 어려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서술관점이 집중되어 있고, 〈梟角林〉과 〈假猴王〉에서 나타나는 진짜와 가짜의 지속적인 대립 부분은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 세 작품은 모두 발단→전개→절정→결말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眞假人物故事'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패턴이다.

'異物の 변신'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존재는 〈梟角林〉에서는 九子母娘娘이고 〈假猴王〉와 〈五鼠〉에서는 世尊이다.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았던 최고의 신성한 존재이며, 결코 인간에 대해서 폭력적이거나 잔혹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異物로 대변되는 가짜의 존재와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신을 제외하고 세 작품에서 등장하는 가짜 인물은 모두 외부적 존재로 구체화된다. 〈梟角林〉, 〈假猴王〉, 〈五鼠〉에서 등장하는 진짜와 가짜는 한편으로는 외형적 대결임과 동시에 내면의 싸움이고, 서로간의 모순과 갈등을 구체적인 異物을 통해 더욱 형상화하고 있다.

Ⅲ. '眞假人物故事'의 의미

'眞假人物故事'에서는 진짜와 가짜 인물의 대립과 갈등,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나타나 진짜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짜가 진짜로 변신하여 진짜와 대면하는 이야기에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¹⁹⁾ '眞假人物故事'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매우 다양한데, 이 세 작품에서 주요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대립'과 '충돌'이다. 이러한 대립과 충돌은 외부적으로 '인간'과 '異物'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지만,

19) '眞假人物故事'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는 작품 텍스트에 한정하여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작품 외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만약 작품 텍스트에만 제한한다면 줄거리 전개를 중심으로 일부 부분적인 의미만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나 작품 텍스트에만 한정하지 않고 저자의 의도, 작품 전체의 주제와 사상과 연관하여 살펴본다면 작품 내면에 녹아 있는 다층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외형적 자아'와 '내재적 자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²⁰⁾ 인간의 내재적 자아가 異物에 투영되거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립의 대상은 일률적으로 '異物'이나 다른 대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진짜와 가짜의 일대일의 대립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인물로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異物과의 힘의 대립에서 조력자(신)가 나타나 도와주기도 한다. 비록 인간과 異物の 충돌과 대립의 특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사형식과 구조는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서사형식은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묘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인물 등장과 묘사,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의 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자신의 내재적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결국 자신과 대면하는 또 다른 자신인 異物은 사실 자신의 본 모습이거나 투영된 모습이다. 비록 일부 작품은 서사 범위의 제한과 줄거리 진행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투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서사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주제와의 연관성을 상관시켜본다면 결코 모호하지는 않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기본으로 '眞假人物故事'의 의미는 자아의 '타자', 자아의 '존재가치', 자아의 '투영' 세 부분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1. 타자의 인식과 구분 그리고 통합

〈皂角林〉, 〈假猴王〉, 〈五鼠〉에는 모두 가짜 인물이 등장한다. 이 가짜는 진짜가 없는 틈에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려 한다. 진짜는 이 가짜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자신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20) '자아'의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외형적'과 '내재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형적 자아'는 '물리적 자아', '불완전한 자아', '경험적 자아', '개체적 자아'라고 하기도 하며, '내재적 자아'는 '초월적 자아', '심리적 자아', '내면적 자아', '절대적 자아', '윤리적 자아' 라고 하기도 한다. 이들 자아의 특징들은 모두 어떤 시각이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자아를 확일적으로 이분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외형적 자아'와 '내재적 자아'로 구분할 수 있다. '외형적 자아'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언어, 습성, 시각 등 형이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재적 자아'는 인식, 관념, 이상, 가치, 이념 등 형이상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명구, 〈자아와 타자의 접속: 宋元明話本小說의 '人鬼交感'현상 연구〉, 《中國小說論叢》第31輯, 2010년 3월, 215쪽 참고.

존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의식의 주체이고,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일 수 있는 존재이고 다른 이가 자신을 대신하리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짜가 등장하고 나서 진짜는 '자신임'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 사람임은 가짜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바로 진짜임을 증명할 길이 없다.

진짜에게 있어서 가짜는 '타자'이다. 이 타자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자신의 모습을 닮고, 자신이기를 원하는 상대이다.²¹⁾ 이 타자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진짜인 자신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가짜는 진짜가 없는 틈에 나타나며, 그가 부재한 틈에 모든 것을 자신의 임의대로 처리한다. 진짜가 가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진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원래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이다. 진짜가 아무리 자신을 진짜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를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 이때 진짜는 자신의 모습을 한 자신이면서 타자인 가짜를 인식하게 되고, 이어서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타자와 자신을 구분하려고 한다.

趙再理는 어머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집 앞 찻집의 할멈이 말하였다. “나리가 태어날 때부터 숨겨져 있는 흉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너를 낳았을 때에 등에 붉은 표식의 흉터가 무리지어 있었다.” 윗도리를 벗자 정말로 붉은 흉터가 무리지어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함성을 지으면서, “먼저 온 사람이 가짜다!”라고 외쳤다. 趙현령은 문밖에 대고 무슨 일로 소란스러운지 물었다. 하인이 “문 앞에 또 다른 현령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趙현령은 “어떤 자가 감히 이렇게 함부로 구느냐! 내가 이미 돌아왔는데, 어째서 또 다른 趙현령이 있던 말

21) '타자'의 개념은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며, 전면적이다. 타자는 단순히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이나 단체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체 사회나 국가, 민족, 세계일 수도 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관념이나 상징, 법규, 체제, 시간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타자'의 형태도 자아와 마찬가지로 크게 '외형적 타자'와 '내재적 타자'로 나눌 수 있다. '외형적 타자'는 타자의 외형, 속성, 행동, 언어, 표정 등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재적 타자'는 타자의 내면적 속성, 회상, 자각, 용서, 이해 등 정신적 후퇴와 성찰의 반응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의 '타자'는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을 가리키며, '타자'의 형태도 '외형적 타자'에 제한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타자의 개념과 형태는 김명구, <자아와 타자의 접속: 宋元明話本小說의 '人鬼交感' 현상 연구>, 《中國小說論叢》第31輯, 2010년 3월, 213-215쪽 참고.

이나?”라고 말하고 문밖에 나가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趙현령은 말하였다. “어머니! 이 사내는 누구입니까? 어쩌서 함부로 버릇없게 어머니를 붙잡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내 아들 몸에 붉은 흉터가 있는 사람이 진짜이다.”라고 하였다. 趙현령 역시 웃옷을 벗었다.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며 놀랐는데, 그의 등에도 붉은 흉터가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구나!”라고 말하였다. 趙현령은 趙再理를 開封府로 보냈는데, 大尹(군 태수)이 바로 재판을 하기 위하여 관청으로 나왔다. 먼저 집으로 돌아 온 趙현령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관복을 갖추어 입고 開封府로 들어와 大尹과 주객의 예를 갖추어 앉고서는 그간의 일을 하나하나 말하였다. 大尹은 먼저 온 趙현령의 말만 믿고서 오히려 趙再理를 꾸짖으며 몇 차례 형벌을 가하고 고문하였다. 趙再理는 의지가 강직하고 기상이 장대하여,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峰頭驛에서 머물렀다가 일어난 일로 큰소리로 항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²⁾

趙再理는 가짜와 대면하면서 비로소 가짜 趙再理를 인식하게 된다. 지금까지 또 다른 자신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그를 행세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흉터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도 똑같이 지니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없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다. 官府에 가서 소송을 걸어보지만, 가짜는 이미 官府와 한통속이 되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진행될 뿐이다. 이러한 고초를 겪으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점차 자기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한 타자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假猴王〉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孫行者는 크게 노하며, 沙僧을 뿌리치고 철봉을 잡아 당겨 내리치며 욕하였다.

22) 趙再理摔著娘不肯放, 點茶的婆婆道:「生知縣時須有個癩痕隱記。」媽媽道:「生那兒時, 脊背下有一搭紅記。」脫下衣裳, 果然有一搭紅記。看的人發一聲喊:「先歸的是假的!」卻說對門趙知縣問門前爲甚亂嚷, 院子道:「門前又一個知縣歸來。」趙知縣道:「甚人敢恁的無狀!我已歸來了, 如何又一個趙知縣?」出門, 看的人都四散走開。知縣道:「媽媽, 這漢是甚人?如何扯住我的娘無狀!」娘道:「我兒身上有紅記, 是真的。」趙知縣也脫下衣裳。衆人大喊一聲, 看那脊背上, 也有一搭紅記。衆人道:「作怪!」趙知縣送趙再理去開封府。正直大尹陞堂。那先回的趙知縣, 公然冠帶入府, 與大尹分賓而坐, 談是說非。大尹先自信了。反將趙再理喝罵。幾番便要用刑拷打。趙再理理直氣壯, 不免將峰頭驛安歇事情, 高聲抗辨。(《皂角林》)

“네 놈은 어떤 요물이기에 감히 나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의 자손들을 차지하고 나의 동굴에 들어와 제멋대로 머무르면서 위세와 복덕을 함부로 쥐고 혼든단 말이냐?” 그 行者는 孫行者를 보고서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로 철봉으로 응수해 왔다. 두 孫行者가 한 곳에 서 있으니 과연 진위를 구분할 수 없었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싸웠다. 두 자루의 철봉, 두 마리의 원숭이, 이 싸움은 실로 만만하지가 않구나. 모두가 唐御弟 승려를 보호하고 각자 공적을 내세워 英名을 피하여 하는구나.……처음에는 동굴 밖에서 겨루었으나, 잠시 후에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서로 팽팽하게 대결을 벌이는구나.²³⁾

孫行者는 觀音菩薩과 함께 있다가 沙僧의 연락을 받고서 가짜를 처치하러 花果山으로 간다. 가짜를 만나자 바로 가짜를 몰아붙이고 그와 대결을 벌인다. 하지만 가짜도 마찬가지로이다. 孫行者는 이때 비로소 타자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구분이 일어난다. 그는 오직 힘으로써 가짜를 제압하고 자신이 진짜임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 孫行者는 끊임없이 가짜(타자)를 자신과 구분하려고 하지만, 孫行者가 ‘자신임’을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五鼠〉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五鼠〉에서 施俊이 과거시험을 보러가는 도중에 병으로 인하여 과거를 치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가짜가 이미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행세를 하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施俊은 비로소 자신과 같은 타자를 인식하고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려고 한다. 자신이 아무리 진짜라고 주장할수록 더욱 더 진위는 밝히기 어려워진다. 그는 할 수 없이 官府에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官府에 가자, 사건은 더욱 더 복잡해지고 갈수록 일이 꼬여 결국에는 더 많은 가짜가 등장하게 된다.

타자에 대한 인식과 타자를 자신과 구분하려는 행동은 바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과 같다. 타자는 자신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과 대적하고 있다. 내재적 자이는 이러한 타자의 인식과 구분의 과정을 통해서 통합으로 이르게 한다. 통합은 양쪽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다른 하나가 속성을 잃을 때도 있고, 오히려 그 속성을 계속 보존할 때도 있다. 세 작품에서

23) 這大聖怒發，一撒手，撇了沙和尚，掣鐵棒上前罵道：「你是何等妖邪，敢變我的相貌，敢占我的兒孫，擅居吾仙洞，擅作這威福？」那行者見了，公然不答，也使鐵棒來迎。二行者在一處，果是不分眞假，好打呀！兩條棒，二猴精，這場相敵實非輕。都要護持唐御弟，各施功績立英名。……先前交手在洞外，少頃爭持起半空。(〈假猴王〉)

는 어느 한쪽이 소멸하고 다른 한쪽이 긍정성을 획득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즉 가짜의 거짓을 밝혀내고 진짜의 진실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皂角林〉, 〈假猴王〉, 〈五鼠〉에서는 모두 이러한 통합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통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도 그 대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진짜의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가짜가 거짓성이 밝혀져 소멸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멸은 자아와 관계가 없는 객관적 대상이 제거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 소멸되거나, 혹은 자신의 내재적 자아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통합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²⁴⁾ 예를 들면, 〈皂角林〉에서 趙再理가 九子母娘娘의 도움으로 가짜를 밝혀내고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大尹은 趙再理를 포박하여 한쪽으로 두게 하고, 즉시 가짜 현령을 불러서 大廳에 앉게 하였다. 大尹이 말하였다. “어떤 이가 그대(判縣郎中)는 사람이 아니고, 廣州 新會縣의 皂角林大王이라고 고하였소.” 가짜 현령은 이 말을 듣고 낮빛이 붉어지며,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라고 물었다. 大尹은 “진짜 趙현령이 東峰東嶺에서 九子母娘娘을 만나서 들은 것이라고 하오.”라고 대답했다. 가짜 현령은 크게 놀라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마침 진짜 趙현령은 계단 아래에 있었는데, 大尹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누런 보자기를 풀고서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서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멈추자, 大廳에 있던 가짜 현령이 보이지 않았다.²⁵⁾

24) ‘통합’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皂角林〉, 〈假猴王〉, 〈五鼠〉에서는 주로 인간은 진실을 획득하고, 異物은 거짓이 밝혀져 소멸당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자아와 타자의 입장에서 ‘통합’과 ‘소멸’을 살펴보면, ‘소멸’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제거의 경향을 가지고, ‘통합’은 자신과 연관 있는 자기안의 타자의 제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과 ‘통합’은 그 대상과 시각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皂角林〉, 〈假猴王〉, 〈五鼠〉에서는 ‘소멸’과 같이 대립하고 객관적인 대상과 구분하고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구분해서 나의 다른 면을 살펴보게 하는 ‘통합’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객관적 대상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바로 대상이 자신의 일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하고 인식이 바뀌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통합’에는 소위 ‘소멸’의 기능도 존재하지만, ‘소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趙再理는 가짜의 거짓을 밝혀냄으로써 '자신임(自我同一性)'을 획득하였다. 진짜와 가짜의 대립에서 타자를 인식하고 구분하며 마지막에는 타자를 제거한다. 이때의 자아는 자신이 유일한 존재로 여기는 관점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통해서 자신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어지고 또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계기를 가지게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짜의 소멸을 통해서 자아와 타자가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소멸을 통해서 자아의 존재감이 상승하고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趙再理는 이전의 고집스럽고 자신의 의지만을 강조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인식하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假猴王〉, 〈五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바로 타자의 소멸과 동시에 내 안에서 타자와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작품에는 이렇게 타자의 인식과 구분, 통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를 인식하고 구분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이 작품에서는 가짜의 소멸로 나타나지만, 타자와의 완전한 격리가 아니라 언제나 내 안의 타자로 인식하고 구분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타자이다. 비록 이것이 부정적인 통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해치는 異物이며, 異物의 소멸(일부)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존재성을 강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자와의 통합은 그 대상의 특징과 행동,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²⁶⁾ 〈皂角林〉, 〈假猴王〉, 〈五鼠〉에서는 통합의 과정이 가짜가 소멸하거나 거짓성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및 인식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을 보다

25) 大尹教押過一邊。即時請將假知縣來，到廳坐下。大尹道：「有人在此告判縣郎中非人，乃是廣州新會縣皂角林大王。」假知縣聽說，面皮通紅，問道：「是誰說的？」大尹道：「那眞趙知縣上東峰東岱岳，遇九子母娘娘所說。」假知縣大驚，倉惶欲走。那眞的趙知縣在塔下，也不等大尹臺旨，解開黃袱，揭開盒子。只見風雨便下，伸手不見掌。須臾，雲散風定，就廳上不見了假的知縣。(〈皂角林〉)

26) 만약 가짜가 스스로 '거짓성'을 밝히고 인간에게서 떠나간다면 자아와 타자의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지겠지만, 작품 속에서는 가짜는 자신이 진짜임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 이것은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짜의 '獸性'과도 관계가 깊다.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한 것인데,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인식과 구분, 통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의 자아 속의 타자를 인식하고 구분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자신에 대한 존재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2. 존재가치의 상실과 회복

〈梟角林〉, 〈假猴王〉, 〈五鼠〉은 모두 주인공의 존재감에 대한 의문과 상실,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의 일반적인 구성은 주요인물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의심받게 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시 존재가치를 회복하는 순서로 그려지고 있다. 주인공은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가짜가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의심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의심받아 온 적이 없다. 자신의 존재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분명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의 시각에 의해서 진위가 판별되고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와 남과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와 그것을 재인식하는 사고가 나타난다. 이것은 진짜가 가짜에 의해서 자신을 부정당하거나 왜곡당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먼저 〈梟角林〉을 예를 들면,

大尹은 거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부임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이다.” 즉시 趙再理에게 물었다. “만약 자네가 진짜라면, 부임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趙再理는 말하였다. “峰頭驛에서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大尹은 사람을 시켜 가짜 趙현령을 데려오게 하였다. 大尹(太守)이 물었다. “그대는(判縣郎中) 부임문서를 가지고 있는가?” 趙현령은 대답하였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 어머니 거처로 가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大尹에게 바쳤다. 大尹은 소리쳤다. “趙再理, 네가 진짜라면, 어찌하여 부임문서가 다른 곳에 있단 말인가?” 趙再理는 대답하였다. “大尹께 고합니다. 峰頭驛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어느 해에 과거에 급제했는지, 시험관은 누구인지, 그해 시험의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新會縣의 知縣으로 제수 받았는지 물어보십시오.” 大尹은 생각해보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군!” 하며, 그것을 가져 趙현령에게도 물었다. 그는 하나하나 맞게 대답하는데, 趙再理가 말한 것과 결코 차

이가 없었다. 大尹은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때 가짜 趙현령은 집으로 돌아가서 금은보화를 보내어 이번 송사를 유리하게 이끌었다.……관리는 趙再理에게 말하였다. “나리,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奉符縣에 가면 城의 군영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흙을 짊어지고 물을 길어야 되는 공사에 동원될 것인데, 그들이 온갖 모욕을 주면서 결국에는 죽일 것이오. 차라리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겠소!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니, 무릇 따르지 않을 수 없구려. 우리 두 사람은 현지의 官府에 가서 회신(公文)만 받아 가면 될 것이오. 당신이 일찍 목숨을 끊는다면, 우리들 또한 빨리 東京으로 돌아 갈 수 있지 않겠소.” 趙再理는 이 소리를 듣고서 연달아 하늘에 대고 울부짖으며 “다 그만두자, 다 그만두! 내가 죽어 지옥에 가서 이 억울함을 고하여야겠구나.”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을 감고 몽둥이가 내리치기를 기다렸다.²⁷⁾

趙再理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짜가 이미 집에 와있었지만, 가족이 진위를 구분하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官府의 판결에 기대를 건다. 진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임을 확신하였기에 가족이 비록 가짜와 구분하기 힘들지만, 법에 의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지리라 믿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官府로 이송되자 사건은 진짜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현령은 그에게 ‘부임문서(告筭文憑)’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는 峰頭驛에서 잃어 버렸다고 말한다. 반면에 가짜는 그가 잃어버렸던 ‘부임문서’를 보여준다. 진짜는 다시 과거 급제했을 때의 시험관이 누구며, 시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新會縣의 현령을 제수 받았는지 모두 말하였다. 그러나 가짜도 똑같이 대답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억은 자기 자신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밝힐 수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으로도 자신임을 증명할 수 없

27) 大尹再三不決。猛省思量：「有告筭文憑是真的。」便問趙再理：「你是真的，告筭文憑在那裡？」趙再理道：「在峰頭驛都不見了。」大尹臺旨，教客將請假的趙知縣來。太守問：「判縣郎中，可有告筭文字在何處？」知縣道：「有。」令人去媽媽處取來呈上。大尹叫：「趙再理，你既是真的，如何官告文憑，卻在他處？」再理道：「告大尹，只因在峰頭驛失去了。卻問他幾年及第？試官是兀誰？當年做甚題目？因何授得新會縣知縣？」大尹思量道：「也是。」問那假的趙知縣，一一對答，如趙再理所言，並無差誤。大尹一發決斷不下。那假的趙知縣歸家，把金珠送與推款司。……公人對趙再理道：「官人，商量句話，你到牢城營裡，也是擔土挑水，作塌殺你，不如就這裡尋個自盡。非甘我二人之罪，正是上命差遣，蓋不由己。我兩個去本地官司討得回文。你便早死，我們也得早早回京。」趙再理聽說，叫苦連天：「罷，罷！死去陰司告狀理會！」當時顫做一團，閉著眼等候棍子落下。(《皂角林》)

다. 자기 자신은 가짜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부정당하게 된다. 가짜는 자신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미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조치하였다. 가짜의 노력으로 趙再理는 아무리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여도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에는 겉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때에 따라서 조작과 학습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임문서'와 과거시험에 대한 기억들로 진위를 판가름하게 된다. 진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외형적인 단서와 경험에 의해서 정의되어 진다.

결국 그는 兗州 奉符縣으로 추방당하고, 중도에 비록 仙童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의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채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奉符縣으로 추방 온 그에게 端公은 부역을 시키지 않고, 자신의 두 아이를 가르치게 한다. 비록 다른 죄인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지만, 마음속의 슬픔은 훨씬 커서 괴롭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봄날에 花園을 산책하다가 더 이상 공명을 추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와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처지를 생각하며 감정이 복받쳐 연못에 빠져 죽으려 한다. 이러한 행동 모두가 존재가치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仙童, 九子母娘娘, 龍王 등의 도움으로 가짜 趙再理의 본색을 알게 되고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치를 회복하게 된다. 〈假猴王〉에서의 孫行者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두 孫行者가 가다가 싸우고 싸우다가 가다가 하면서 바로 南海에 도달하였고 이어서 落伽山에 이르렀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서로 욱하고 싸우면서 고성이 끊이지 않자, 護法諸天(佛法을 수호하는 신들)들이 놀라 潮音洞으로 달려가 아뢰었다. “觀音菩薩님, 과연 두 孫悟空이 싸우면서 여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觀音菩薩는 木叉行者, 善財童子, 龍女와 같이 寶蓮臺에서 내려와 문밖을 나서며 소리쳤다. “이 축생들, 어디로 가느냐?” 두 孫行者가 서로 번갈아 꼭 붙잡으며 말하였다. “菩薩님, 이놈이 정말로 제 모습으로 변신하였습니다. 水簾洞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여 여러 시진동안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沙悟淨의 눈은 우매하여 진위를 가려낼 수 없을 뿐더러 힘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제가 서쪽 길로 보내어서 이 사실을 사부님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놈과 겨루다가 觀音菩薩님이 계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觀音菩薩님의 혜안으로 진짜와 가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옵소서.” 말을 마치자, 다른 孫行者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다른 諸天들과 觀音菩薩이 오랫동안 살펴보았으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觀音菩薩이 말하였다. “싸움은 그만 두고 내가 다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양쪽으로 서 있거라!” 그러자 과연 서로 손을 떼고 양쪽으로 서 있었다. 이쪽에서 “내가 진짜입니다.”라고 말하자, 저쪽에서 “저 놈이 가짜입니다.”라고 말하였다.²⁸⁾

孫行者가 자신이 진짜임을 강조할수록 가짜는 더욱 자신과 같은 모습과 행동으로 닮아간다. 결국 가짜를 무력으로써 제압하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가짜도 진짜 못지않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도 힘으로써는 어찌지 못하게 되었다.²⁹⁾ 孫行者는 아무리 욕설을 하고 힘으로 가짜를 제압하고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려고 하여도 이 둘은 진위를 갈수록 분간하기 힘들고 가짜는 더욱 진짜처럼 보인다. 三藏 일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觀音菩薩과 地藏菩薩조차도 진위를 분간하기가 힘들 자, 孫行者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의심받게 된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는 자신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자의 시선과 인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때 孫行者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럴수록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 〈梟角林〉의 趙再理가 자기존재를 부정당했을 때 스스로 처지를 비판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과 달리, 孫行者는 더욱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기위하여 가짜를 맹렬히 공격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모두 심리적으로 존재가치의 상실에 기인한 것이며, 世尊이 등장하여 가짜의 본모습을 밝히기 전까지 계속된다. 결국 孫行者가 존재감을 획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두 타자의 시선과 인식에 의해서만

28) 那兩個行者，且行且鬪，直來到南海，徑至落伽山，打打罵罵，喊聲不絕。早驚動護法諸天，即報入潮音洞裡道：「菩薩，果然兩個孫悟空打將來也。」那菩薩與木叉行者、善財童子、龍女降蓮臺出門喝道：「那孽畜，那裡走？」這兩個遞相揪住道：「菩薩，這廝果然像弟子模樣。纔自水簾洞打起，戰鬥多時，不分勝負。沙悟淨肉眼愚蒙，不能分識，有力難助，是弟子教他回西路去回復師父，我與這廝打到寶山，借菩薩慧眼，與弟子認個眞假，辨明邪正。」道罷，那行者也如此說一遍。衆諸天與菩薩都看良久，莫想能認。菩薩道：「且放了手，兩邊站下，等我再看。」果然撒手，兩邊站定。這邊說：「我是眞的！」那邊說：「他是假的！」(《假猴王》)

29) 이야기의 중간에 진짜와 가짜의 대결장면을 삽입한 것은 상당한 구성적 노력이 엿보인다. 이것은 이후 견뎌야 할 많은 위협과 고난을 대비해서 일종의 事前의 경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위를 밝히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五鼠〉에서는 〈梟角林〉와 〈假猴王〉보다 다양한 가짜 인물이 등장하여 어느 한 인물에 대한 존재가치의 상실과 회복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섯 명의 가짜 인물 중에서 처음 단서를 제공한 施俊이 비교적 존재가치의 상실과 회복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小二가 먼저 집안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何氏와 요괴가 大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何氏는小二가 돌아온 것을 보고서 바로 일어나서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돌아온 것이냐?”小二는 대답하였다. “늦게 왔다는 말씀일랑 마십시오. 하마터면 주인나리의 생명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을 뻔 했습니다.” 何氏는 어떤 주인나리인지 물었다.小二는 대답하였다. “저와 함께 東京으로 갔던 주인나리 말입니다. 어떤 주인나리를 묻는 것입니까?” 何氏는 웃으며 말하였다. “네가 도중에 게으름을 피우고 부지런히 따라오지 않은 게로구나. 주인 나리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이미 20여일이 지났다.”小二는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인 나리는 저와 함께 날마다 같이 길을 걷고, 밤에는 같이 자면서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먼저 돌아왔다고 하십니까?” 何氏는 듣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다. 그때 갑자기 施俊이 집안으로 들어와 何氏를 보고서는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하였다. 부인에게 그동안 여관주인으로 변신한 요괴에게 홀려서 고통을 겪은 일을 말하였다. 요괴는 밖이 소란스럽자, 바로 大廳으로 나가 크게 소리쳤다. “누가 감히 나의 부인을 희롱하는 게냐!” 施俊은 크게 화를 내며 가까이 가서 요괴와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요괴에 의해서 쫓겨 나왔다. 이웃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施俊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장인어른에게 가서 사실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장인어른은 심히 걱정하며 사람을 시켜서 소장을 갖추어 王丞相 府에 고하도록 하였다.³⁰⁾

30)小二先入門，恰值何氏與妖精在廳後飲酒。何氏聽見小二回到，便起身出來問云：「汝緣何歸得仍遲？」小二答云：「休道歸遲，險些主人命亦不保。」何氏問是哪個主人。小二道：「同我赴京去的，又問是哪個主人？」何氏笑云：「爾於路上躲懶不赴行，主人先回二十餘日矣。」小二驚道：「說哪裡話？主人與我日裡同行，夜則同睡，寸步不暫離，汝何說他先回？」何氏聽罷，疑惑不定。忽施俊入得門來，見了何氏，相抱而哭。其妻正訴被怪脫形來迷之事，那妖怪聽得，走出廳前喝聲：「是誰敢戲吾妻？」施俊大怒，近前與妖相鬧一番，被妖趕逐而出。鄰里聞之，無不驚愕。施俊沒奈何，只得投見岳父，訴知其情。岳父甚憂，令之具狀告于王丞相府衙。(〈五鼠〉)

여관주인으로 변신한 다섯째 쥐요괴에 의해서 중독된 施俊이 다행히 董眞人에게 구한 丹藥을 먹고 나아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가짜가 와 있었다.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家童 小二도 말해 주었지만, 너무나 똑같은 모습에 부인조차도 진위를 구분하기 못한다. 施俊은 자신이 독에 중독되어 고통을 받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정신적 고통이 훨씬 크고 심각하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진짜임을 주장하였지만, 그럴수록 가짜의 '진짜 같음'은 더욱 강조될 뿐이다. 나중에 包拯의 도움으로 진짜의 본모습이 쥐요괴임이 밝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자, 상실된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³¹⁾

이처럼 〈皂角林〉, 〈假猴王〉, 〈五鼠〉의 주요인물은 모두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하고 혹은 상실하고 난 후에 외부의 도움으로 가짜를 제압하고 존재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보다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자신의 기억들이 사실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게 만들고, 가치를 재확인하고 인식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 인식을 한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심리적, 육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며, 자신은 더욱 더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 경험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자신의 존재와 가치는 타인의 시각과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재인식하게 되는 모멘텀(momentum)이 생긴다. 그

31) 包拯에 의해서 가짜 施俊은 쥐요괴임이 밝혀지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施俊과 아내와의 관계회복이다. 가짜 施俊은 진짜 施俊을 중독 시키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 가짜 施俊이 친지간에 귀향 인사를 하고난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부인과 동침하는 것이었다. 진짜 施俊은 이미 가짜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 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누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아내와 가짜 施俊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작품에서도 施俊과 부인 何氏의 결합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절제하였고, 가짜를 물리치고 원래대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준 包拯의 덕망에 감사하다는 것을 보다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施俊取所得董眞人丸藥飲之, 何氏乃吐出毒氣而愈。夫婦感慕包公之德, 設牌于家, 不煩旦夕拜祝之矣。)

리하여 趙再理는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간 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새롭게 자신을 살펴보며, 孫行者나 施俊도 진위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며, 재인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가치 실현을 새롭게 추구하고자 한다. ‘眞假人物故事’는 이러한 진위의 곡절한 판결과정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시하고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와 또한 그러한 과정을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내면의식의 투영

〈皂角林〉, 〈假猴王〉, 〈五鼠〉은 모두 진짜와 가짜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짜와 가짜는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는데, 대립의 양상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서로 각각 다른 대상, 즉 사람과 異物로 존재하지만, 그 異物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과 내면 의식을 투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異物은 인간에게 있어서 객관적 대상이면서도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기도 하다. 異物의 출현은 자신의 잠재된 이면을 구체화시켜 주기도 하고, 부족하거나 억눌렸던 감정의 발현이기도 하며, 모범적인 인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이면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도 心境의 충위와 이해의 충위를 보여주기도 한다. 비슷한 정도의 투영과 잔상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나타나는 충위는 다르며, 이러한 충위는 주인공의 心境과 인식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異物은 단순히 객관적 실체로서만 존재하며 인간과 갈등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반응하며 인간의 내면을 투영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세 작품에서 주인공 앞에 나타나는 가짜 인물(異物)은 모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異物은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고 주인공을 위협하고, 심지어 주인공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려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인간 속에 내재된 의식의 일부가 투영된 것이다.

趙현령은 크게 놀라며 廟官에게 물었다. “봄가을로 어떤 제물을 바치는가?” 廟官은 현령에게 아뢰었다. “봄에는 칠세 여 남은 사내아이를, 가을에는 여자아이를 바칩니다. 이 아이들은 각 지방에서 돈을 거두어 미리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산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아이들을 뒷짐을 지게 하여 기둥에 묶고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어서 大王에게 술을 권하옵니다.” 현령은 크게 노하며 주위의 衙前을 시켜 廟官을 잡아들여 감옥에 보내 심문하도록 하였다. “본관이 처음 (본 현의) 현령으로 제수 받고서 백성을 위하여 부모가 되고자 하였는데, 어찌하여 억울하게 생명을 해치게 한단 말인가?” 즉시 하인을 시켜서 진흙 神像을 부수게 하고 사당을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었다. 일부 마을사람들이 현령이 탄 말을 에워쌌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대왕님께서 오셨다! 대왕님께서 오셨다!”라고 소리쳤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슨 大王이냐고 물으니, 어떤 이가 “皂角林大王입니다.”라고 아뢰었다. 현령이 살펴보니, 붉은 비단으로 길을 내고, 요란하게 장식한 은색 말안장위에 鬼王이 앉아 있었다. 눈은 칠흑같이 검고 둥글며, 주둥이는 길고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치장한 모습은 사당에서 본 바와 같았다. 현령은 사람을 시켜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여 그를 향하여 한 번 크게 쏘았다. 그러자 하늘이 컴컴해져서 해를 가리고, 천둥과 벼락이 내리치며 금빛이 온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큰 바람이 일어서 모래와 돌이 날리는데 皂角林大王은 보이지 않았다.……趙현령이 皂角林大王 사당을 불태우고 나서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재임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법이 없었고(마을이 잘 다스려져 백성의 풍속이 돈후하였고), 개가 밤에도 짚지 않고(풍속이 안정되어 치안이 잘 유지되었고), 농작물이 잘 여물어 해마다 풍년이였다.³²⁾

趙再理는 처음 부임한 廣州 新會縣의 皂角林大王의 사당에서 해마다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위하여 사당을 파괴한다. 그리고 皂角林大王이 실제로 현신해서 나타났을 때에도 타협의 여지없이 바로 쫓아 버린다. 그리고 마을의 老父들이 찾아와 사당을 재건하고자 부탁하였을 때도 그는 老父들을 쫓아내고 사당을 불태워 버린다.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마땅히 표창 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타협을 모르며, 융통성이 없으며, 혼자만의 고집을 가지고 행동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사회성이 결

32) 知縣大驚，問廟官：「春秋祭賽何物？」廟官覆知縣：「春間賽七歲花男，秋間賽個女兒。都是地方斂錢，預先買貧戶人家兒女。臨祭時將來背剪在柱上剖腹取心，勸大王一盃。」知縣大怒，教左右執下廟官送獄勸罪：「下官初授一任，爲民父母，豈可枉害人性命！」卽時教從人打那泥神，點火把廟燒做白地。一行人簇擁知縣上馬。只聽得喝道：「大王來！大王來！」問左右是甚大王，客將覆告：「是皂角林大王。」知縣看時，紅紗引道，鬧裝銀鞍馬，上坐著一個鬼王，眼如漆丸，嘴尖數寸，粧束如廟中所見。知縣叫取弓箭來，一箭射去。昏天閉日，霹靂交加，射百道金光，大風起飛砂走石，不見了皂角林大王。……趙知縣自從燒了皂角林大王廟，更無些個事。在任治得路不拾遺，犬不夜吠，豐稔年熟。(《皂角林》)

여되었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가짜는 그와 외형적 모습은 같았지만, 그 보다 훨씬 더 강한 사회성과 타협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짜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유리하게 판결을 이끌도록 종용했으며,³³⁾ 옥리를 포섭하여 趙再理가 兗州 奉符縣으로 추방당하는 도중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³⁴⁾ 이러한 모든 특징이 趙再理에게는 결여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이상적 투영을 보게 된다. 이 가짜의 모습은 진짜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겪은 후의 趙再理는 이전과는 다른 인물로 태어난다. 비록 원문에 드러난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인 서술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진짜는 가짜가 보여주는 면모를 닮고 싶어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아의 투영은 반드시 도덕적 의미와 선악의 판별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이면을 구체적인 대상의 행동과 모습에 투사할 뿐,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긋난다고 해서 투사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아의 투영은 있는 그대로 자신 내면의 다양한 욕구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욕구와 희망의 도덕적 판단 역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지,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희망과 인식은 도덕적 판단 기준을 떠나서 투영하는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皂角林〉의 趙再理가 자아와 공동체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을 투영했다고 한다면, 〈假猴王〉의 孫行者는 철저히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行者는 듣고서 냉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아우, 그 말은 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네. 내가 唐僧을 때리고, 붓짐을 빼앗은 것은 내가 서방 세계로 가지 않으

33) 大尹一發決斷不下。那假的趙知縣歸家，把金珠送與推款司。自古「官不容針，私通車馬。」推司接了假的知縣金珠，開封府斷配眞的出境，直到兗州奉符縣。

34) 비록 가짜 趙再理가 미리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위치를 선점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만든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도 가짜의 원활한 융통성과 사회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러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여기에 머물기를 좋아해서도 아니라네. 나는 지금 문첩을 익숙하게 읽고, 스스로 서방 세계로 가서 부처를 뵈고 불경을 구하여 동토로 보내고자 함이네. 나 홀로 그 임무를 완성하여 南瞻部洲의 사람들이 나를 始祖로 삼아서 자손만대로 이름을 남기고자 함이네.” 沙僧이 웃으며 말하였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고이래로 ‘孫行者가 불경을 가지러간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釋迦如來께서 三藏眞經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애초에 觀音菩薩님이 동토로 가서 경을 가져오는 사람을 구하여 불경을 가져오게 하려고 한 것이었고, 우리가 수많은 산을 힘들게 넘고, 수많은 나라를 거쳐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觀音菩薩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이는 釋迦如來의 제자이고 호가 金蟬長老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가 釋迦如來의 설경을 들으려하지 않기 때문에 靈山에서 쫓겨나고, 동토를 전생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그를 서방세계의 정果를 얻어 다시 大道를 닦으라고 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온갖 마귀의 방해가 있기에 우리 세 사람을 해탈시켜 더불어 그가 호법의 임무를 다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형님이 唐僧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어떤 釋迦如來님이 기꺼이 형님에게 불경을 전해주겠소? 그것은 헛되이 마음을 쓴 것이 아니겠소?” 그 行者는 말하였다. “아우, 자네는 어리석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자네 쪽에 나와 같이 보호할 唐僧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어찌 唐僧이 없겠는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따로 도를 갖춘 진짜 승려를 골라 불경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네. 이 몸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는 것이 어찌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이미 사람을 뽑아서 내일 바로 출발하고자 정하였네. 자네가 정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모셔 와서 자네에게 보여주겠네.” 그리고 나서 소리쳤다. “얘들아 빨리 사부님을 모셔오너라.” 과연 무리들이 뛰어들어 들어가서, 白馬 한 필을 끌고 나오고, 唐三藏을 모시고 나오는데 뒤에 붓짐을 진 八戒와 錫杖을 쥔 沙僧이 따라 나왔다.³⁵⁾

35) 行者聞言，呵呵冷笑道：「賢弟，此論甚不合我意。我打唐僧，搶行李，不因我不上西方，亦不因我愛居此地。我今熟讀了牒文，我自己上西方拜佛求經，送上東土，我獨成功，教那南瞻部洲人立我爲祖，萬代傳名也。」沙僧笑道：「師兄言之欠當。自來沒個『孫行者取經』之說。我佛如來造下三藏眞經，原著觀音菩薩向東土尋取經人求經，要我們苦歷千山，詢求諸國，保護那取經人，菩薩曾言：取經人乃如來門生。號曰金蟬長老。只因他不聽佛祖談經，貶下靈山，轉生東土，教他果正西方，復修大道。遇路上該有這般魔障，解脫我等三人，與他做護法。兄若不得唐僧去，那個佛祖肯傳經與你！卻不是空勞一場神思也？」那行者道：「賢弟，你原來懵懂，但知其一，不知其二。諒你說你有唐僧，同我保護，我就沒有唐僧？我這裡另選個有道的眞僧在此，自去取經。老孫獨力扶持，有何不可！已選明日大走起身去矣。你不信，待我請來你看。」叫：「小的們，快請老師父出來。」果跑進去，牽出一匹白馬，請出一個唐三藏，跟著一個八戒，挑著行李；一個沙僧，拿著錫杖。（假猴王）

孫行者는 觀音菩薩의 부탁으로 東土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는 과정에 동참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사히 헤쳐 나간다. 그러나 孫行者가 산적들을 때려죽인 일로 三藏은 그를 내쫓아 버린다. 孫行者는 三藏에게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단만 맞고 쫓겨 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 取經 과정에서 낙오된 孫行者는 자신의 충성심이 덧없음을 느낀다. 가짜 孫行者는 진짜 孫行者의 내면에 감춰진 공명심과 자만심에 대한 표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다른 요괴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三藏을 長生不老의 회생물로 삼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³⁶⁾ 그래서 가짜 孫行者는 내면적인 욕구와 욕심을 강조하고, 진짜는 내면적인 성숙과 도덕성을 드러낸다. 진짜는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적 욕구와 공명심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짜 孫行者에게 투영하고 있다. 이것은 진짜와 가짜가 대적하는 것을 본 釋迦如來가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이다(汝等俱是一心, 且看二心競鬪而來也.)”라고 말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진짜와 가짜의 그칠 줄 모르는 팽팽한 대결은 결국 世尊의 도움으로 일단락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적인 ‘本我’와 이지적인 ‘自我’간의 갈등과도 비슷하다.³⁷⁾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욕구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가짜는 이성적으로 억압된 나의 모습임과 동시에 억눌린 욕구를 드러내는 구체적 표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욕구의 원천인 무엇인지 안 진짜는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러자 가짜는 그 위력을 상실하고 미약한 존재로 변한다. 비록 내면적 욕구는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없지만 그 욕구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스스로 그것을 억제 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孫行者가 무력으로 가짜를 때려죽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명을 추구하고 자만심을 가진 자신의 내면적 의지와 마음이 무력화 되어 가짜를 무찌른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五鼠〉에서는 孫行者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가짜에게 투영했다고 할 수 있다. 〈五鼠〉에서는 다른 작품에서와는 달리 많은 가짜 인물이 순차적으로 등장한다. 이 중에서 진짜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투영한 인물은 가짜 施俊이라

36) 記德君, 〈古代小說中眞假人物設置的藝術匠心〉, 《廣州大學學報》第1卷第2期, 2002年2月, 3쪽 참고.

37) 王莉, 〈眞假美猴王故事的心理學解讀〉, 《長沙大學學報》, 第23卷第1期, 2009年1月, 84쪽 참고.

고 할 수 있다.

그 요괴는 바로 몸을 빼서 살그머니 施俊 모습으로 변신하여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何氏는 마침 규방에서 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나가서 살펴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물었다. “겨우 집을 떠난 지 20여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연고로 바로 돌아오셨나요?” 요괴는 대답하였다. “東京에 가까워질 즈음에 도중에 과거시험을 치르러 가는 선비를 만났소. 이미 시험장이 파해서 선비들이 흩어져 성을 떠났다고 하였고, 내가 이 소식을 듣고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을 돌려 돌아왔다고요.” 何氏는 물었다. “小二是 어찌 같이 오지 않았는지요?” 요괴는 “小二是 잘 견지 못하여 내가 행장을 그의 친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분명히 그 뒤를 따라오게 하였는데, 뒤쳐져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소.”라고 말하였다. 何氏는 그 말을 믿었다. 이어서 바로 아침상을 차려 요괴와 함께 먹고 나자, 친지들이 찾아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모두 진짜라고 여겼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요괴와 何氏는 함께 회포의 정을 나누는데, 어찌 진짜 남편은 여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알겠는가?³⁸⁾

施俊은 과거시험을 치르러 길을 떠났지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금의환향하고픈 꿈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성취하고픈 욕망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³⁹⁾ 하지만 여관에서 崔요괴를 만나 병을 얻고, 다행히 小二의 도움으로 董眞人에게 구해온 丹藥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이미 과거시험 기한을 넘기게 된다. 결국 그는 20여일이 지난 뒤 집으로 돌아온다. 가짜 施俊은 그가 여관에서 병으로 고통 받고

38) 那妖怪逕脫身變化作施俊模樣，拋走歸來。何氏正在房中梳粧，聽得夫婿回轉，連忙出來看時果是，笑容可掬，因問：「才離家二十餘日，緣何便回？」那妖怪答道：「將近東京，途遇赴試秀士，說道科場已罷，纔子散離都下，我聞得遂不入城，抽身回來。」何氏云：「小二如何不同回？」妖怪答云：「小二不會走路，我將行李寄他朋友帶回，著他隨之，在後未到。」何氏信之，遂整早飯與妖怪食畢，親戚來望，都見是真的。自是那怪與何氏取樂，豈知眞夫在店中受苦？(〈五鼠〉)

39) 이러한 사회적 성취 욕망의 이면에는 개인적 욕망이 억압되어 있다. '眞假人物故事'에서 글공부(과거시험)를 위한 자리비움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욕구는 장년의 가장에게 부여되는 임무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문을 번성시켜야한다는 남성적 의무 혹은 권력 욕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五鼠〉의 施俊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윤주필, 〈베트남의 〈鼠精傳〉과 〈墮固執傳〉 - 眞假爭主 설화의 수용미학적 관점 -〉, 《古小說研究》 제21집, 2006년 1월, 125-126쪽 참고.

있을 때 이미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행세를 한다. 가짜는 비록 쥐요괴가 변신한 인물이지만, 이 異物의 행동에는 施俊의 심리적 욕구가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가짜의 존재는 施俊의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施俊은 자신의 시각으로 가짜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 시각에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보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짜에 대한 인식에는 이미 자신의 심리적 요소가 바탕을 이루며, 그 관점과 평가에는 자신의 내면적 욕구와 의미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가짜 施俊이 한 행동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먼저 가짜 施俊은 施俊을 중독 시키고 바로 施俊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施俊의 입장에서는 과거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여 시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하였고, 내면적으로 빨리 귀향하고픈 무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짜 施俊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친척들과의 인사를 끝내자마자 그의 부인과 회포를 나눈다. 이러한 행동에는 施俊이 내면적으로 귀향과 함께 부인과 그동안 못 나누었던 회합의 정을 풀고 싶은 성적욕구 해소의 의미를 담고 있다. 施俊은 자신이 희망하는 내면적 욕구, 즉 '귀향'과 '성욕'에 대한 욕구를 가짜 施俊에게 은연중에 투영하고 있다. 施俊은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부인과 다정하게 지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을 가짜 施俊의 행동과 생각에 모두 의탁하고 있다.

〈皂角林〉의 趙再理는 가짜 趙再理에게 자아와 공동체와의 관계개선을 투영하였다면, 〈假猴王〉의 孫行者는 가짜 孫行者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공명심과 자만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五鼠〉에서 施俊은 〈假猴王〉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내면적인 욕구를 투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향과 성욕해소를 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假猴王〉이 개인적인 성향을 표현하고 있지만, 대의명분을 중시하거나 공명을 추구하는 욕심을 반영한 것으로 출세, 공명, 자만 등 비교적 적극적인 자기실현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五鼠〉의 施俊은 자신의 욕구를 외향적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내향적으로 축소시키고 육체적 평온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소극적 경향을 보여준다. 비록 이 두 가지 경향은 모두 내면적인 욕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假猴王〉이 밖으로의 욕구 확대를 표현하고 있다면, 〈五鼠〉의 施俊은 안으로의 욕구 축소를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眞假人物故事'의 의미에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기도 하며, 개인의 내면의 소극적, 적극적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며, 타자의 투영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적 속성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단지 진짜와 가짜 인물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형상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진짜와 가짜 인물에 내재된 내재적 자아와 그에 관련된 다양한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아의 투영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인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속에 존재하는 욕구가 다층적인 心境과 어떻게 반응하며, 그 층위에 따라 자신의 다른 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진짜의 내면이 투영된 가짜를 통해서 타자와의 관계와 인식의 정도, 거절과 수용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내면에 숨겨진 다양한 욕구와 경향을 구체적인 행동과 표현 및 함축적인 상징을 통해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IV. 나오는 말

이상으로 진짜와 가짜 인물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警世通言》第36卷 〈皂角林大王假形〉(이상 〈皂角林〉), 《西遊記》第57回 〈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簾洞謗文〉, 第58回 〈二心攪亂大乾坤 一體難修真寂滅〉(이상 〈假猴王〉), 《百家公案》第58回 〈決戮五鼠鬧東京〉(이상 〈五鼠〉)을 중심으로 그 서사내용과 구조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皂角林〉, 〈假猴王〉, 〈五鼠〉 세 작품에는 모두 異物の 변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진위를 가리는 방법과 양자가 대립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짜로 변신한 異物을 자신의 힘이 아닌 외부의 도움으로 인하여 처치한다는 점과 異物과 직접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작품은 모두 발단→전개→절정→결말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인공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인공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가 나타나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설정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존재는 〈皂角林〉에서는 九子母娘娘이고 〈假猴王〉와 〈五鼠〉에서는 世尊이 이에 해당된다. 비록 異物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신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게 한다. 세 작품에서 등장하는 진짜와 가짜는 한편으로는 외형적 대결이지

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의 싸움이므로 서로간의 모순과 갈등을 異物을 통해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眞假人物故事'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다양한데, 이 세 작품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립'과 '충돌'이다. 이러한 '대립'과 '충돌'은 외부적으로 인간과 異物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자아가 異物에 투영되거나 반영되어 대립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립의 대상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비록 인간과 異物의 충돌과 대립의 특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사형식과 구조는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작품의 서사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주제와의 연관성을 상관시켜본다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적 특징은 자아의 '타자', 자아의 '존재가치', 자아의 '투영' 등 세 부분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며, 개인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소극적,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며, 타자의 투영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적 속성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인물이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전개해나가는 스토리 과정과 구조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와 心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타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지, 존재가치의 상실과 회복 및 자아의 투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다양한 욕구와 경향을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馮夢龍編撰, 徐文助校訂, 繆天華校閱, 《警世通言》, 臺北, 三民書局, 1992年.
 吳承恩撰, 繆天華校注, 《西遊記》, 臺北, 三民書局, 2006年.
 古本小說叢刊編輯委員會編, 《古本小說叢刊》第2輯第4冊, 安遇時編集, 《百家公案》, 北京, 中華書局, 1990年.
 이부용, 《韓國民譚의 深層分析 - 分析心理學的 接近》, 집문당, 1995년.
 이부용, 《分析心理學 - C.G. Jung의 人間心性論》, 일조각, 1995년.
 최천집, 《조선후기 진·가 확인형 소설의 형성기반과 서사세계》, 한국학술정보, 2008

년.

이강엽,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 《古小說研究》 제17집, 2004년.

윤주필, 〈베트남의 〈鼠精傳〉과 〈壅固執傳〉 - 眞假爭主 설화의 수용미학적 관점 -〉;
《古小說研究》 제21집, 2006년1월.

趙顯雨, 〈「壅固執傳」과 '自我 同一性' 문제〉; 《語文研究》 제36권제1호, 2008년 봄.

김명구, 〈자아와 타자의 접속: 宋元明話本小說의 '人鬼交感'현상 연구〉; 《中國小說論叢》 第31輯, 2010년3월.

秦榕, 〈從《古鏡記》看析鏡子文學意象的流變〉; 《福州師專學報(社會科學版)》 第22卷第1期, 2002年2月.

記德君, 〈古代小說中眞假人物設置的藝術匠心〉; 《廣州大學學報》第1卷第2期, 2002年2月.

鄒婷, 〈試析白居易詩中的鏡子意象〉; 《岱宗學刊》 第12卷第1期, 2008年3月.

王莉, 〈「眞假美猴王」故事的心理學解讀〉; 《長沙大學學報》, 第23卷第1期, 2009年1月.

【中文提要】

本論文以《警世通言》第36卷〈皂角林大王假形〉、《西游記》第57回〈眞行者落伽山訴苦 假猴王水帘洞騰文〉、第58回〈二心攪亂大乾坤 一体難修眞寂滅〉和《百家公案》第58回〈決戮五鼠鬧東京〉爲例, 觀察眞假人物(人與怪物)的對立和在矛盾過程中所呈現出的敘述內容、構造以及涵義。在怪物變身爲假人物的過程中, 人物並不是以自身的能力來消除怪物, 而是借助外部(神仙)力量來處置怪物。在以上三部作品中所出現的人與怪物, 表面上是兩者之間的對決, 但兩者都反映了人的心理矛盾和糾紛。這三部作品所體現的主要觀點是「對立」和「衝突」。我們從作品的內容敘述和整體布局, 以及主體思想的連續性和各自的共通点上, 都能够看出這些涵義。這些特徵以「他者」的自我、自我的「存在价值」和自我的「影射」來具體呈現。這些意義能够顯示出個人和社會的關係, 以及個人內心存在的積極和消極的不同層面。尤其是影射於「他者」, 把人物的內在屬性和要求都充分反映出來。因此透過這些研究使之易於觀察, 及所含蓄的豐富多樣和夏雜曲折的心境, 並怎樣認知「他者」和「自我」, 「存在价值」的喪失和恢復, 以及內在所隱藏的多樣性要求和趨勢。

【主題語】

眞假人物, 異物, 變身, 敍事構造, 心理糾紛

투고일: 2011.10.20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